

##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과 제주불교의 변화

한금순\*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
- III. 심전개발운동 이후 제주불교의 변화
- IV. 맺음말

---

\* 제주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

© 『大覺思想』 제40집 (2023년 12월), pp.279-317.

## 한글요약

심전개발운동은 193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정신계몽운동이다. 총독부는 경신숭조(敬神崇祖)를 강조하여 종교계를 참여시켰고, 한국불교는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불교 부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불교계는 심전개발운동 목적을 위한 시국 관련, 정신 수양 관련 강연과 함께 불교 포교를 위한 강연 기회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찰이 증설되고 신도 수가 증가하는 등 불교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물론 불교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종교계 전반의 흐름이 이러하였다.

제주불교도 한국불교의 심전개발운동 활동과 같은 흐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 제주도의 심전개발운동 강연회는 전라남도 대흥사의 포교사나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생 승려의 지방 순회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공공기관의 참여로 강연회가 독려되었다. 제주도에서도 심전개발 강연회로 신앙에 대한 강연 활동이 보장됨에 따라 포교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제주불교에서는 이 시기에 이전에 없었던 법화산림, 미타산림 등의 대규모 법회와 관음기도, 염불기도회, 우란분법회 등 전통불교를 교육하고 신앙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각종 법회는 수백 명이 참여하는 성황이 이어졌다.

심전개발운동의 결과 제주불교는 사찰 설립이 증가하였다. 1935년까지 15개소였던 사찰이 1935년 이후 31개소가 추가 설립되는 증가가 일어났다. 법당, 요사, 객실 건축이 이어졌으며 봉불식, 탕화 조성, 가사불사 등의 활동도 증가되었다. 또한 제주불교연맹이 결성되어 제주도내 불교계의 통일된 활동을 주도하였고 불교옹호회, 부인회 등 신도회도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심전개발운동은 한국불교 등의 한국종교계를 활성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불교 활동도 활성화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심전개발운동, 정신계몽운동, 제주불교, 제주불교연맹, 제주불교 활성화, 지방순회강연회, 대작불사, 전통불교의례, 관음사, 사찰설립 증가

## I. 머리말

심전개발운동은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였던 정신계몽운동이다.<sup>1)</sup> 1930년대 일본이 맞닥뜨리고 있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정신계몽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신앙심 함양을 심전개발 3대 원칙에 포함시키면서 종교계를 앞장세워 실시하였다.

한국불교는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불교 부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불교계 인사들도 심전개발 강연에 참여하였다. 강연은 사찰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찰 밖에서도 이루어졌고, 불교인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종교 내용의 강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종교계로서는 포교 기회의 확대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주도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강연이 실시되었다. 심전개발 강연회에서는 심전개발 목적을 위한 시국 관련 강연, 정신 수양 관련 강연과 함께 불교 관련 강연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sup>2)</sup> 강연회에는 대규모 청중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면서 실제로 한국불교는 불교 포교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고 사찰이 증설되는 등 불교 활동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고는 제주불교에서는 심전개발운동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살피고, 그 영향이 한국불교<sup>3)</sup>의 양상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제주불교 상황과 심전개발운동

1) 심전개발운동은 경제부흥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본고는 불교계의 현황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심전개발 강연 연계를 살펴보면, ‘불교의 정신이란, 인간정화의 최고 이상’(「김포불교강연회」, 『동아일보』, 1936.6.24.), ‘동양평화의 정신, 위국불위신, 세계평화를 위하여’(「무운장구 기원 명야, 시국강연도 개최」, 『동아일보』, 1937.8.5.), ‘귀경삼보와 신앙보국’(「김천불교강연」, 『동아일보』, 1938.9.10.) 등과 같이 종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본고의 ‘제주불교’는 제주 지역에서의 불교활동의 범주를 지칭하면서, ‘한국불교’는 전국적인 불교활동의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실시 이후 제주불교의 변화를 살펴 심전개발운동이 제주불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리하려 한다. 우선 제주불교의 변화는 시설 측면으로 사찰 설립과 불상 등의 구비 상황의 변화를 살피고, 인적 활동 측면으로는 승려와 신도들의 활동 양상 변화를 각각 살펴 심전개발운동의 영향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제주불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근대 제주불교의 1930년대 중반 이후 1945년까지의 제주불교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II.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

### 1. 심전개발운동

심전개발운동은 193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종교, 사상, 교육 분야의 사회운동이다. 일제는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을 기르려고 하였고 이를 통해 황국신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천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식민지 운영의 안정적 통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한 몸이라는 인식인 내선일체 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영향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영향을 미쳐, 농가 부채의 증가와 소작농 몰락 현상 등으로 이어졌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결과 농민의 80%가 소작농이 되었고, 소작농의 소작료는 70-80%에 달하여 과도한 소작료 부담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작쟁의가 잇달았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 운동계열에서 농민의 의식을 깨우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적색농민노합 등이 주도하여 일본을 몰아내고 소작제를 없애기를 주장하는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은 조선 농촌이 스스로 절약과 근검으로 자력갱생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정신운동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를 저지하고자 하는 노력 등도 함께 진행하며 사회적 어려움도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정신계몽 운동을 추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3년 말부터 농촌진흥운동을 심전개발운동으로 준비하였으며, 1935년 도지사회의와 도참여관회의 등을 통하여 심전개발운동을 본격 추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심전개발운동을 위해 노력하였다.

#### 참여관 회의

도지사 회의에 계속하여 소집된 임시 도참여관 회의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도변(渡邊) 학무국장 통재하에 개최되었다. 우선 우원(宇垣) 총독이 별항 요지의 훈시를 하고 즉시 의사로 들어가 김 경기도 참여관이 자문 답신 후 본론으로 들어갔다. 금번 참여관회의의 안목은 작추 제정된 의례준칙의 보급 철저, 저반의 지사 회의에서 신중 토의된 농가갱생 10개년 계획에 대한 재음미 또 우원 총독이 창도(唱導)하고 있는 심전의 개발 소위 종교부흥운동 등 회의 그것이 갖는 사명에 가(加)하여 ...<sup>4)</sup>

위 기사를 통해 심전개발운동은 우가키(宇垣) 총독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주장하는 바이며 종교 부흥운동으로 실시하여 종교계를 심전개발운동의 선봉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종교계를 앞장세워 심전개발운동을 실시하였다.<sup>5)</sup> 종교계로서는 종교 부흥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4) 「참여관 회의」, 『동아일보』, 1935.1.17.

5) 종교계가 참여한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불교, 기독교(감리교, 장로교로 명기), 천도교, 유교가 연합으로 참여하고 있다.’(「각 종교단체 연합으로 시국연설회 개최」, 『동아일보』, 1937.7.26.)

1936년 1월 <심전개발 시설에 관한 건> 실행안을 마련하여 심전개발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국체 관념을 명확히 할 것, 경신숭조(敬神崇祖) 사상과 신앙심을 함양할 것, 보은·감사·자립 정신을 양성할 것’이라는 심전개발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국체 관념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나라라는 의식 즉 내선일체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므로 일본이 처한 당대의 국가적 어려움은 곧 조선의 어려움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전개발 강연에서 시국 관련 강연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강연 연제를 보면, ‘시국 인식’<sup>6)</sup> 등이 다수로 파악된다.

경신숭조(敬神崇祖)는 신앙심을 함양시키고 우리의 조상숭배 전통을 고양 시킨다는 뜻으로 유교와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의 모든 종교계가 경신숭조(敬神崇祖)를 위해 동참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전개발 관련 연구에서는 “일제는 조선불교가 신도가 많고 동아시아의 전통종교라는 등의 이유로 조선불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불교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sup>7)</sup>고 연구하고 있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보은·감사·자립 정신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황국신민으로서의 충성심을 고양 시키고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심전개발운동의 목표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중 한국불교는 심전(心田)을 ‘마음 밭을 가꾼다’는 불교적 의미와 상통한다고 이해하여 심전개발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sup>8)</sup> 예를 들어 당시 심전개발 강연에 나섰던 불교계 김태흡의 강연

6) 「시국인식 강연」, 『조선일보』, 1937.12.14.

7)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신계몽운동을 통한 식민통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6집,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p.423.

8) 심전개발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 중 불교 관련 연구로 다음의 연구물이 있다.

연제는 “심전경작(心田耕作)과 전미개오(轉迷開悟)”<sup>9)</sup> 또는 “시국과 심전개발”<sup>10)</sup>, “신앙심 고취를 위한 불교 중심의 강연”<sup>11)</sup> 등이었고, 권상로는 “불교와 민중”<sup>12)</sup> 등을 주제로 강의하여 심전개발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불교 활동의 일환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불교계는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불교 포교 기회를 확대하고 불교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심전개발운동에 호응하게 되었다고 연구되고 있다. 심전개발 강연을 한 포교사 김태흡이 “심전(心田)이란 말은 불경에서 나온 것으로, 잡아함경 제4권에 심전경작(心田耕作)이라는 어구가 있다.”<sup>13)</sup>고 하고 있어 불교계가 심전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31본사주지를 모아 심전(心田)을 설명하면서 “반도 민중의 정신 착함에 협력을 요구하며, 특히 조선불교를 부흥시켜 정신계를 진전시키는 데 공헌해 줄 것”<sup>14)</sup>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교계는 심전개발운

김순석,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의 ‘심전개발운동’ 전개와 조선 불교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김순석, 「1930년대 전반기 재조선(在朝鮮) 일본 불교계의 동향 -『조선불교』지에 나타난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신계몽운동을 통한 식민통치-1930년대 심전개발운동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8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조성운, 「『불교시보』를 통해 본 심전개발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7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한궁희, 「1935~37년 일제의 ‘심전개발’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6.

9) 「양구에서 불교 강연」, 『조선일보』, 1937.3.8.

10) 「통천 시국 강연 성황」, 『조선일보』, 1937.10.10.

11) 「경기도에서 삼대 강좌 개최」, 『조선일보』, 1937.1.15.

12) 「심전개발 강연회」, 『조선일보』, 1939.9.27.

13) 류승주, 「일제의 불교정책과 친일불교의 양상」, 『불교학보』 4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2, p.168에서 재인용.

14) 우가키 가즈시게, 「정신계를 위해 공헌하라」, 『조선불교』 99호, pp.2-3. 김

동이 불교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1936년 1월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심전개발운동의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종교단체 및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 등에 심전개발운동에 참여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심전개발운동을 선전하기 위한 홍보 책자 3만 부를 제작하여 관련 단체에 배포하거나 신문과 라디오 방송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총독부는 사찰령을 개정하여 불교계의 사회진출을 뒷받침하면서 심전개발운동의 참여가 곧 종교의 발달임을 드러내어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sup>15)</sup>

조선총독부는 각 종교단체로 하여금 심전개발운동 실천을 위한 전국 순회강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순회강연에는 불교계 지도자들이 연사로 초빙되었고, 각 시군은 많은 인원을 동원하였다. 불교계도 전국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당시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였던 권상로와 김태흡을 비롯하여 불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승려들을 강사로 동원하였고,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생들과 일본 유학생들도 방학을 이용하여 순회강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강사들은 대규모의 강연 활동과 경찰서, 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마련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심전개발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강연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시체제가 되면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선포되고 더욱 내선일체가 강조되며 심전개발운동은 천황의 신민으로 임무와 사명을 다하라는 보국(報國)이 대대적으로 강조되었다. 다음의 시국인식 강연을 통해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

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p.161에서 재인용.

- 15) “총독부에서는 심전개발운동에 반한 사찰의 정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사찰령을 개정하고자 한다 함은 … 중략 … 금후 불교의 포교는 승려의 산중 수양으로부터 가두 진출을 하여 총독부의 특별한 보호하에 소위 국가적 종교의 발달을 보게 될 것으로 …”(「가두에 진출토록 사찰령 대개정」, 『조선일보』, 1935.9.11.)



간난극복의 “생업보국” 기원

국위선양 기원제와 농산어민의 보국 선서

금조(今朝) 신궁(神宮)에서 성대히 거행

남총독이 지난 9일에 시난(時難) 극복을 위하여 전인지구와 생업보국의 유고를 발표한지 2주일인데 그 취지를 받들어 전시체제 밑에서 전조선 농산어촌 민중은 일제히 일어나서 봉공의 적의성을 신전에 빌게 되었다. 금 23일 추계황령(皇靈)제일은 오전 6시반부터 이 최대의 행사인 국위선양기원, 농산어민 보국선서식이 전조선 일제히 거행되었고 경성에서는 전조선 군수 부윤을 비롯하여 각도 진흥 관계관이 모여 무운장구를 빌고 생업보국을 맹서하게 되었다.<sup>16)</sup>

중일전쟁의 상황을 인식하여 일본군(皇軍황군)에게 감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후방의 국민(銃後총후)들은 가정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은혜를 갚아야 함(報國보국)을 자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연이 실시되었다.

불교계도 시국에 대한 강연과 국방헌금을 바치거나 군인들을 위한 기원제를 주도하였다. 예를 들어 “무운장구 기원,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무운장구를 기원하기 위해서 개운사에서 기원회를 거행”,<sup>17)</sup> 또는 “보국강연 불교교무원에서, 총후 보국 강조주간에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강연회와 국위선양, 무운장구 기원의 기원법요회를 개최”<sup>18)</sup> 등의 활동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심전개발운동 초기의 불교계 강연 제목은 ‘심전과 불교’ 관련 내용이 많았으나 점차 ‘보국, 총후’ 등의 시국 내용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된다.

심전개발운동은 당대 농촌사회가 비교적 안정화 되어가는 데에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하면서 1940년까지 지속되었다. 심전개발운동은 총독부 중심의 동원성 운동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던 것

16) 「간난극복의 “생업보국” 기원」, 『동아일보』, 1937.9.24.

17) 「무운장구 기원 명야, 시국강연도 개최」, 『동아일보』, 1937.8.5.

18) 「보국강연」, 『동아일보』, 1938.4.26.

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고, 불교계의 경우는 마음 밭(心田심전)을 일군다는 점을 불교의 정신을 포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불교 신도수의 증가 등 불교 활동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sup>19)</sup>

종교계의 포교소수나 신도수의 증가 현황으로 심전개발운동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다음은 1936년 말 총독부의 종교 교세 통계를 보도하고 있는 기사이다.<sup>20)</sup>

기독교가 단연 압도

조선내 각 종교 교세 조사(소화 11년도)

당국이 조사한 바를 보면 소화 11년 말 현재의 조선내 각 종교 교세는 다음과 같아서 기독교가 압도적 세력을 보이고 있다.

	포교소	포교사	신도
▲ 신도(神道)	291	572	110,381
전년비	13증	32증	2,859감
▲ 내지불교	548	720	285,640

19) 한궁희의 앞의 논문, p.182.

류승주의 앞의 논문, p.170. 참조.

20) 이 기사는 총독부 당국이 발표한 자료라면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인용할 다음 해의 기사 주21)(『조선일보』, 1939.1.21.)과 비교하면 1938년 기사의 수치가 1939년 기사에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통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용하는 이 두 개의 기사 속 종교 교세 통계는 당대의 모든 사찰의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의 본사와 말사를 제외한 ‘포교소와 포교사’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34년의 통계라 볼 수 있는 「공인 종교 현세(現勢)」(『조선일보』, 1935.5.3.)에서는 불교의 본산, 말사, 포교소를 별도로 통계를 싣고 있다.

“공인 종교 현세(現勢) … 불교는 현재의 상황은 본산 31, 말사 1,307, 포교소 147, 승려 5,712, 니승 1,080, 신도 12만 8천 여라고 한다. … 예수교는 현재 포교소 4,269, 포교자 2,647, 내외선교사 444, 신도 422,500여 인이다. … 신도(神道)는 82,000여 인 기타 일본불교에도 조선인 신도가 8,200여 인이다.”(「공인 종교 현세(現勢)」, 『조선일보』, 1935.5.3.).

이와 같이 본말사와 포교소는 별도의 시설로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전년비	31증	31증	616증
▲ 조선불교	244	243	175,712
전년비	41증	17증	7,821증
▲ 기독교	4,752	3,195	489,626
전년비	259증	365증	20,872증
선교사 증감이 없다			

그리고 신도수가 가장 단히는 것은 조선야소교장로회로서 그 수가 20,872 인으로 전부가 조선 사람이다.<sup>21)</sup>

1936년 말부터 신도(神道)를 제외하고 일본불교, 조선불교, 기독교가 포교소와 포교자 및 신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1936년과 1937년 사이의 종교계 증가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시국하 신앙심 발로 불교와 기독교 신도수 격증

작년 1년 중에 46,000명 증가

신도(神道)만은 신도가 감퇴

조선 이천삼백만 민중의 심전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종교는 나날이 융성하여가는 현상인데 십이 년 말 현재 총독부 조사에 의한 종교 및 향사(享祀) 수에 의하면 그중 신도(神道)는 소화 11년보다 12년의 포교소수는 8개소가 증가하였고 포교자수는 18명이 증가하였으나 신도수에 있어서는 18,658명이 감소한 역현상이다. 그리고 내지불교, 조선불교, 기독교 등 각 종교는 포교소수, 포교자수, 신도수가 모두 격증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각 종교별로 증감된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포교소수	포교자수	신도수
▶ 신도(神道)	1937년 말	299	589	91,723
	1936년 말	291	571	110,381
	비교 증감	8	18	감 18,658
▶ 내지불교	1937년 말	567	767	303,908
	1936년 말	548	720	285,640

21) 「기독교가 단연 압도」, 『조선일보』, 1938.3.2.

	비교 증감	19	47	18,268
▶ 조선불교	1937년 말	279	278	194,177
	1936년 말	244	243	175,712
	비교 증감	35	35	18,465
▶ 기독교	1937년 말	5,004	3,936	499,323
	1936년 말	4,752	3,195	489,626
	비교 증감	252	741	9,697
	계	306	823	46,430

이같이 하여 교도수는 46,430명의 증가를 보아 시국하에 종교신앙에 돌아 가는 수는 늘어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sup>22)</sup>

심전개발 활동으로 각 종교는 포교소수, 포교자수, 신도수가 모두 격 증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두 기사는 전년도 대비 증감을 기록하고 있어서 다음의 <표 1> 과 같이 1935년부터 1937년까지의 현황을 정리할 수 있다.

<표 1> 심전개발운동 실시 전후 1935년-1937년도의 종교계 현황

구 분	연도	포교소	포교사	신자	비 고
신도(神道)	1935	278	540	113,240	신도(神道)의 포교사 항목에서 *한 곳은 1937년 통계에서는 571로 되어 있다.
	1936	291	572*	110,381	
	1937	299	589	91,723	
일본불교	1935	517	689	285,024	
	1936	548	720	285,640	
	1937	567	767	303,908	
조선불교	1935	203	226	167,891	
	1936	244	243	175,712	
	1937	279	278	194,177	
기독교	1935	4,493	2,830	468,754	
	1936	4,752	3,195	489,626	
	1937	5,004	3,936	499,323	

22) 「시국하 신앙심 발로 불교와 기독교 신도수 격증」, 『조선일보』, 1939.1.21.

1935년부터 1937년까지 3년 통계로 심전개발운동 초창기 일본불교, 조선불교, 기독교 등 종교 전반에서 포교소와 포교사 및 신자수가 모두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신도(神道)는 포교소와 포교사는 증가하였으나 신자수는 계속 감소하였다. 3년 사이에 포교소는 신도(神道)는 21개소 증가, 일본불교가 50개소 증가, 조선불교 76개소 증가, 기독교는 511개소가 증가하였다. 포교사는 신도(神道)는 49명 증가, 일본불교 78명 증가, 조선불교 52명 증가, 기독교는 1,106명 증가하였다. 신자수는 신도(神道)에서만 감소세로 21,517명의 신자가 감소하였고, 일본불교 18,884명 증가, 조선불교 26,286명 증가, 기독교는 30,569명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종교계의 활성화는 심전개발운동이 경신승조를 내세우며 종교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며, 종교계로서는 심전개발운동을 이용하여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였다고 볼 수 있다.

## 2.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

### 1) 한국불교의 지방 순회 제주도 강연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은 육지부 본사 사찰의 지방 순회 강연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불교는 1911년 제정된 사찰령에 의해 전국을 31개 구역으로 나누어 31본산을 두었다. 제주도에는 사찰령에 따른 본산 사찰이 없었고,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 속하였으나 전라남도 대흥사를 비롯 전라북도 위봉사, 충청북도 범주사 등 여러 지역의 본사에 소속된 제주도포교소가 설치되어 각각 활동하고 있었다.

(1) 대흥사의 제주도 순회 포교

대흥사는 일제 사찰령에 의한 본사 사찰이었고, 심전개발운동 활동으로 1936년 8월 말사가 있는 지방을 대상으로 심전개발 순회 포교를 실시하였다.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은 대흥사의 이 순회 포교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제주도의 대흥사 포교소로는 근대 제주불교의 중심 사찰인 제주 관음사와 서귀포의 법화사 등이 있었다. 관음사는 1908년 창건되었고, 창건주인 안봉려관 스님이 대흥사에서 출가하는 인연 등으로 1918년 대흥사 제주도포교소로 신고하였다. 1924년 제주불교협회 활동의 중심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제주불교를 이끄는 중심 사찰이었다.

대흥사는 1936년 5월에 전라남도 일대의 말사 소재 지방에서 순회포교를 하였고 여름에는 제주도에서 순회포교를 실시하였다.

대본산 대흥사에서는 춘기를 이용하여 지난 5월 중에 전남 일대 말사 소재 지방을 순회포교를 행하고 금번 하기를 이용하여 포교사를 제주에 파견하여 제주 전도를 순회하여 심전개발 포교를 하였는데 일시 장소 및 연제 연사 씨명은 좌와 여하다.<sup>23)</sup>

대흥사의 제주도 심전개발 포교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의 여섯 개 마을에서 총 6회에 걸쳐 마련되었다. 대흥사 포교사 문학연의 제주도에서의 순회 포교 상황을 다음의 <표 2>로 만들었다.

<표 2> 대흥사 말사 소재 지방 순회 포교(문학연의 제주도 강연 현황)

주최	연제	장소	청중
고산포교소	신앙은 생활의 힘	한림면 고산포교소	50명
법화포교소	불교의 정신	서귀면 법화사	50명
법환리불교회	심전개발과 신앙		600명

23) 「대본산 대흥사 순회포교 상황」, 『불교시보』 제14호, 불교시보사, 1936.9.1, p.8.

관음사 신도측	심전은 석존의 경작	표선리 송남석 별정(別亭)	150명
법주사포교당	종교와 신앙	조천공립보통학교	400명
화북불교회	심전개발은 정신생활	사립 화북보통학교	300명

출처 : 『불교시보』 제14호(1936.9.1.)

제주불교에서 처음 실시된 대홍사의 심전개발운동 지방 순회 포교 상황을 통해 제주도에서 실시된 심전개발운동의 내용과 규모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순회 포교 내용을 살펴보자.

① 강연자는 대홍사 포교사인 문학연이었다.

② 순회 포교의 연제는 “신앙은 생활의 힘, 불교의 정신, 심전개발과 신앙, 심전은 석존의 경작, 종교와 신앙, 심전개발은 정신생활” 등이다.

강연 제목을 통해 신앙에 관한 강연, 심전의 의미와 불교와의 관계 그리고 정신계몽 관련 내용을 강연하였음을 알릴 수 있다. 일제는 심전개발운동을 정신 수양을 통한 자력 갱생에 목표를 두고 있었고 한국불교계는 강연을 통해 불교 포교를 의도하고 있었던 심전개발운동의 특징이 확인되기도 한다. 대홍사 포교사인 문학연이 제주도에 강연을 하는 것에 따른 제주도만의 특별한 내용이라는 특징은 발견되지 않고 전국적 흐름과 동일한 내용의 강연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장소는 고산포교소와 법화사 사찰 외에, 서귀포공립보통학교, 조천공립보통학교, 화북보통학교 등의 학교와 표선리 송남석 별정이 이용되었다. 불교계가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순회 포교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심전개발운동이 총독부 주관의 정책이었음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던 정책 실천의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강연 지역이 제주도의 고산리, 하원리, 서귀리, 조천리, 화북리, 표선리로 제주도의 동서남북 지역을 두루 다니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④ 청중은 오십 명에서 육백 명에 이르렀는데 보통학교에서의 강연에 수백 명의 청중이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찰보다는 학교에 운집

한 청중이 더 대규모에 이르는 것도 공공기관 주도 행사라는 심전개발 운동의 특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전개발운동에서 대규모의 청중이 참여하는 순회강연은 포교 방법에서 눈에 띄는 매력적인 기회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⑤ 순회 포교의 주최는 고산포교소, 법화포교소, 법주사포교당과 법환리불교회, 관음사 신도측, 화북불교회가 주최하였다. 관음사와 고산포교소, 법화사는 대흥사 제주포교소 사찰이다. 대흥사 포교소가 아닌 법주사 포교당 주최 순회 포교에 대흥사 포교사가 가고 있음도 확인된다. 즉 제주도에서는 해당 본사 사찰의 포교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본사 사찰의 제주도포교소에서도 강연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또한 사찰 자체의 판단으로 남의 포교소에 가서 강연을 하거나 초청 강연을 개척한다기 보다는 심전개발운동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일정한 관리 방안의 방법에 따른 시행일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은 대흥사의 말사 지방 순회 포교로 시작되었다. 초창기 심전개발 강연의 주제는 불교 포교를 위한 강연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을 살폈고, 장소는 공공기관의 협조하에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기도 하는 양상이었고 제주도에서도 다수의 청중이 참여하였음을 살필 수 있었다.

## (2) 중앙불교전문학교 순강대의 제주도 순회 강연

1938년 7월과 8월에는 중앙불전 순강대가 전국 순회 강연의 일환으로<sup>24)</sup> 제주도 순회 강연을 하였다.<sup>25)</sup>

24) 중앙불전 학생의 하기 순회강연은 1937년에도 실시한 바가 있으며, 1938년 여름방학에도 순회 강연회를 조직하여 남부지방을 순회하였다. 이 하기순회 강연대의 회원은 백석기, 신상보, 나방우 세 명이며 7월 12일부터 8월 5일 까지의 일정을 계획하였다. 청주, 보은, 공주, 논산, 군산, 전주, 나주, 광주, 목포, 벌교, 순천, 제주도를 순회지로 하고 있다. (『중앙불전 학생 하기 순회 강연』, 『동아일보』, 1938.7.12.)

25) 「중앙불전 순강대의 순강 상황」, 『불교시보』 제38호, 불교시보사, 1938.9.1,



<표 3> 중앙불전 순강대의 제주도 순회 강연 상황(1938년)

일시	강사	연제	장소	청중
7월 30일	신상보	원각(圓覺)의 대도	한림항	200인
	나방우	생활과 종교		
8월 1일	백석기	불교의 인생관	서귀포	200인
	나방우	신앙의 위력	공립소학교	
8월 2일	나방우	불교란 무엇	법화사	60인
8월 5일	신상보	자아의 탐구	관덕정	300인
	나방우	암야(暗夜)의 등대		

출처 : 『불교시보』 제38호(1938.9.1.)

중앙불전은 중앙불교전문학교를 말한다. 학생 승려들의 전국 순회 강연의 일환으로 제주도 강연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① 강연자는 신상보, 나방우, 백석기 등의 학생 승려가 강사였다.<sup>26)</sup>

② 강연 제목 “원각의 대도, 생활과 종교, 불교의 인생관, 신앙의 위력, 불교란 무엇인가, 자아의 탐구, 암야의 등대” 등으로 보면 불교 관련 강연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27)</sup>

③ 장소는 법화사를 비롯하여 한림항, 서귀포공립소학교, 관덕정<sup>28)</sup>이 이용되고 있다.

④ 청중은 사찰에서는 60명의 청중이 참석하지만 공공 장소에는 200명~300명에 달하고 있다. 심전개발운동의 특징으로 공공 장소 활용과

p.9.

26) 백석기, 나방우, 신상보는 중앙불교전문학교에 1936년 입학하고(「각 학교 합격자 중앙불교전문」, 『동아일보』, 1936.4.9.) 1939년에 졸업하였다.(「새봄 새졸업생 앨범 특집」, 『조선일보』, 1939.2.20.). 학생 승려로 순회 강연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27) 중앙불전 순강대의 전주에서의 강연 연제는 ‘자아의 실현, 파사현정’으로 파악된다.(「중앙불전 순강대 전주서 대성황」, 『동아일보』, 1938.7.22.). 다른 강연의 연제와 비교하면 시국 관련 강연 제목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28) 관덕정은 조선시대 제주목 관아의 누정이다. 관덕정 앞에 광장이 있어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장소이다.

많은 대중 참여 모습이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초창기 제주도의 심전개발 강연회는 한국불교 포교사들의 전국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 2) 제주도청의 심전개발운동 강연

제주도사는 문학연 대홍사 포교사를 초빙하여 1936년 9월 15, 16일에 제주도청에서 심전개발 강연을 개최하였다. 제주도청의 문학연 포교사 초빙 강연은 심전개발운동의 특징 중 공기관 주도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국적으로도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찰 외의 공기관 주최 강연에 연사로 활동하는 상황이 포착된다.

### 문학연 씨 초청 대강연

금번 제주도청에서 9월 15, 6일 양일간 전제주도, 중견청년지도강습회를 개최한 바 회원은 도청원, 각 읍원, 13면 직원, 어업조합원, 해녀조합원, 및 중견청년 기타 관계 단체원, 합 칠천여 명을 망라하여 도사(島司)로부터 대홍사포교사 문학연 씨를 초빙하여 양일간 심전개발에 대한 대강연이 유하였는데 관민간 대환영을 받고 앞으로 전도 각 읍 각 면을 대동 순강 예정이라고 한다.<sup>29)</sup>

- ① 강사는 대홍사 포교사 문학연이다.
- ② 장소는 제주도청과 각 읍면을 순회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③ 청중은 전제주도 중견 청년 지도강습회에 참여한 제주도청 직원과 각 읍면의 소속 직원을 비롯하여 어업조합, 해녀조합 등 기타 단체 소속원들이었다. 이틀 동안 칠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 ④ 주관은 제주도청이다. 도청이 주관한다는 점에서부터 참가자들의 면모와 규모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주도하는 심전개발운동의 면모를 살

29) 「문학연 씨 초청 대강연」, 『불교시보』 제15호, 불교시보사, 1936.10.1, p.11.

펴볼 수 있다. 이렇게 심전개발운동은 일제의 정책적 추진 의지에 의해 실시되었음이 제주도에서도 확인된다.

심전개발운동 초창기의 제주불교는 자체적으로 순회 강연을 조직하여 불교 포교에 힘쓸 정도의 역량은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사 사찰이 없었던 점, 각기 본사가 다른 15개 정도의 사찰, 8명 정도의 제주도 승려<sup>30)</sup> 규모 등 당대 제주불교의 역량으로는 전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집회의 구성이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할 수 있다. 초창기 심전개발운동의 실천은 제주불교 자체적 역량보다는 전국적인 심전개발운동을 추진하는 공권력의 지원 혹은 한국불교계의 지원 아래 활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3) 제주불교의 심전개발 강연회와 순회 포교

#### (1) 각 사찰 주최 심전개발 강연 및 포교

1937년에 이르러 관음사와 제주불교협회는 자체적으로 심전개발강연회를 주최하였다.

#### 제주 관음사 주최의 심전개발 대강연회

전남 제주 대흥사 성내 포교소 문학연 씨는 작춘 이래로 제주 전도를 망라하여 불교선전에 많이 노력하여 오던 바 금번 신춘을 맞이하여 관음사 및 성내 불교협회 주최로 성내 중학원 강당에서 2월 25일에 「종교는 인류의 대생명이란」 제목으로 장시간 강연이 있었는데 청중은 오백여 명에 달하고 공전의 대성황리에서 오이화 씨의 폐회사로 폐회하였다고 한다.<sup>31)</sup>

① 강사는 대흥사의 문학연이었고 관음사 승려 오이화가 폐회사를 하였다. 문학연은 1937년 대흥사 제주 성내포교소 포교사로 활동하고

30) 『제주도세요람』, 제주도청, 1935.

31) 「제주 관음사 주최의 심전개발 대강연회」, 『불교시보』 제21호, 불교시보사, 1937.4.1, p.9.

있었다.<sup>32)</sup>

- ② “종교는 인류의 대생명”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다.
- ③ 장소는 중학원 강당을 이용하고 있다.
- ④ 오백여 명의 청중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제주불교 자체적인 심전개발 강연은 관음사 외에도 화엄사 제주도포교소에서 1937년 12월 송중수의 “시국인식과 심전개발” 강연<sup>33)</sup>이 있었고, 1938년 7월 서귀포 정방포교당 이일선은 서귀면 보목리 동창학우회 주최로 서귀면 보목소학교 강당에서 “심전개발을 주지로 불교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대강연을 하였다.<sup>34)</sup>

## (2) 제주불교연맹 주도 심전개발 강연 활동 및 순회 포교

제주불교의 심전개발 운동 강연 활동은 1939년 결성된 제주불교연맹 주최의 전도 순회 강연으로 확대 조직되었다. 제주불교연맹은 심전개발 운동의 흐름 속에서 활성화된 불교 활동의 결과 조직되었을 것으로 연구되어 있기도 하다.<sup>35)</sup>

제주불교연맹은 심전개발운동 강연으로 ‘제주불교연맹 제1회 전도 순회강연’을 제주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sup>36)</sup> 1939년 7월 16

32) 「광고 근하신년」, 『불교시보』 제18호, 불교시보사, 1937.1.1.

문학연은 1937년 제주도(화엄사, 선암사, 백양사 등 제주도포교소)에서 법화산림, 미타산림 등의 불사에도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출처: 「대본산대흥사 제주성내포교소 미타산림법회」, 『불교시보』 제20호, 1937.3.1, 「제주 서귀포 백양사포교당 법화산림 대성황」, 『불교시보』 제21호, 1937.4.1.)

33) 「제주도 화엄사포교소의 보국 적성」, 『불교시보』 제31호, 불교시보사, 1938.2.1, p.9.

34) 「이일선 사의 초강」, 『불교시보』 제37호, 불교시보사, 1938.8.1, p.14.

35) 제주불교연맹은 본사가 없는 제주도에서 제주불교의 통합활동을 주도한 단체로 제주불교의 신앙 양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였던 단체였다 는 연구가 있다.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참조.

36) 「제주불교연맹 제1회 순강기」, 『불교시보』 제51호, 불교시보사, 1939.10.1, p.16.

일부터 8월 3일까지 18일 동안 총 40강의 강연을 시행하였다.

<표 4> 제주불교연맹 제1회 전도 순회 강연 현황

연사	연제	장소	청중 인원
오이화	제1성	삼양소학교	약 100여 명
김경식	신앙 보국		
조희영	우리의 믿음	조천소학교	약 50명
이일선	심전개발과 불교		
오이화	인생에 대한 종교의 힘	김녕향사	약 60명
이일선	사변과 오인의 각오		
조희영	심전이란?	평대간이학교	35명
이일선	사변과 불교	세화소학교	200명
조희영	인생과 신앙		
이일선	동아건설과 오인의 각오	성산포유치원	60명
이일선	사변과 불교		
조희영	심전개발과 신앙생활	표선소학교	200명
이일선	사변과 오인의 각오		
조희영	인생과 종교	남원공회당	400명
이세진	가정교육과 신앙		
조희영	사변과 충후의 사명	신효소학교	300명
이세진	불교의 인생관		
조희영	사변과 충후의 입무	서귀북소학교	300명
이세진	교육과 신앙		
조희영	인생과 종교	법환서당교사	300명
오이화	심무과애(心無罣碍)		
이세진	자연과 인생	중문면 면화 매소전정	200명
이일선	비상시국과 불교		
이세진	시심마	안덕소학교	100명
이일선	사변과 불교		
조희영	우리의 급선무	모슬유치원	60명
오이화	보국상의 불교		
이세진	아시하수(我是何誰)	고산서당교사	300명
이일선	비상시국과 오인의 신념		
조희영	사변과 오인의 각오	고산서당교사	300명
이일선	생사에 초탈하자		

조희영	심전개발의 목적	판포향사	150명
이일선	신사회 건설의 정신		
이일선	사변과 불교	한림서소학교	200명
조희영	인생과 종교		
이세진	교육과 신앙	애월면회의당	150명
이일선	동아의 건설과 오인의 신념		
오이화	생사일여		
이일선	현사회의 동향과 불교	하귀소학교	300명
오이화	심전개발과 보국		

출처 : 『불교시보』 제51호(1939.10.1.)

① 강사로는 관음사 승려 오이화와 제주도포교소에서 활동하는 백양사 포교사 이일선, 백양사 포교사 이세진, 대흥사 포교사 조희영 등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제주불교연맹의 집행위원장 오이화는 관음사 해월학원에서 공부하였고 1924년 제주불교협회 활동을 비롯하여 1936년부터 관음사 주지로 활동한 근대 제주불교 활동의 주역이다. 관음사 창건 이후 제주불교 전반에서 활동한 중심 인물이었다.

이일선은 제주불교연맹의 포교부장이다. 불교중앙학림 학생으로 1920년 이회광이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와 한국불교를 병합하려 하자 조선불교청년회 활동으로 전통불교를 수호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이다. 조선불교청년회의 지방 순회 강연 활동을 위한 호남학생순강단에 참여하여 강연 활동을 하기도 했다. 1937년 백양사 포교사 자격으로 제주도에 부임하여 백양사 제주도포교당, 백양사 원당포교소, 백양사 서귀포 정방포교당 등에서 활동하였다.

이세진은 제주불교연맹의 교육부장이다. 내장사 내장선원 강사와 표훈사 중향강원에서 강주로 활동하다 1939년 백양사 한림포교당 포교사로 제주도에 내려왔다. 제주강원에서 승려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희영은 제주불교연맹 결성회에서 불교연맹 결성에 관한 설명을 하

는 등으로 제주불교연맹 탄생에 역할을 하였고 서기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939년 3월에 제주 성내 대흥사포교당 포교사로 부임하여 활동하였고, 제주 성내 대흥사포교당에 관음산림을 개설하여 설법한 인물이다.

전국적으로 심전개발운동에서 강연 활동을 하는 인물들은 불교계에서 신앙을 받는 인물들이 강사에 활용되었는데 제주불교연맹에서도 강연 이력이 두터운 인물들이 제주도로 내려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 연제는 “심무장애(心無罣碍), 시심마(是甚麼)” 등의 불교 관련 주제로 강연하고 있기도 하지만, 심전개발운동의 원래 목적이었던 신앙을 통한 정신계몽 연제로 “신앙 보국, 심전개발과 보국, 보국상의 불교” 등이 많으며, 전쟁 시국을 반영한 연제로 “사변과 불교, 사변과 총후의 사명, 사변과 오인의 각오” 등도 많이 보인다. 제주불교연맹의 심전개발 강연 역시 일제의 심전개발운동의 목적을 실현함과 아울러 불교 신앙의 포교라는 목적도 함께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강연이 실시된 지역을 보면 제주도 전체 읍면이 대상이었고, 학교와 공회당 등 공공장소가 주로 강연 장소로 이용되어 여타의 심전개발운동 실시 현황과 일치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이상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 실시 상황을 확인하였다. 제주불교의 심전개발 강연은 불교계의 의도인 포교 확대를 위한 활동과 아울러 일제가 의도하던 시국 인식을 통한 정신계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불교 인물과 조직이 제주도 순회 강연을 실시하는 모습에서 시작하여, 점차 제주불교 자체적으로 심전개발 강연을 주최하기도 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불교계 지도자들이 강연에 나선다는 점, 공공기관을 활용한다는 점 등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은 전국적인 심전개발운동의 흐름 속에 그대로 놓여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III. 심전개발운동 이후 제주불교의 변화

#### 1. 심전개발운동 이전 제주불교 활동 현황

1911년 사찰령 제정 이후 제주불교에서는 관음사가 1918년 6월 총독부에 첫 사찰 설립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1918년 10월 제주도에서 국권회복과 일본인 축출을 주장하며 법정사 신도들과 칠백여 주민들이 법정사항일운동을 거행하면서 제주불교는 일제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일제는 제주불교 사찰과 승려들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제주불교는 1924년에 이르러야 한국불교 이회명에 의지하는 등으로 비로소 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이 되었다. 1924년 제주불교협회가 결성되면서 제주사회에서 불교 활동을 다시 드러낼 수 있었다.<sup>37)</sup> 그러나 제주불교협회는 일본인 제주도지사가 주도하였고 승려로는 한국불교의 승려 이회명과 제주불교 승려 3명이 참여하였으며, 당대 제주 사회의 행정가, 사법가, 경제계, 의료계 등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간부로 조직 구성에 참여하여<sup>38)</sup> 일제의 통제하에 활동하는 사회단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제주불교협회는 불교의 진흥과 심신수양, 지방문화 발전을 조직의 목적<sup>39)</sup>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불교협회 활동은 일제의 통제 속에서도 불교 활동을 다시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연구되어 있다.<sup>40)</sup> 제주

37)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대해서는 한금순의 앞의 책을 참조하였다.

38) 제주불교협회 조직에 참여한 승려는 4명으로 파악되며, 일본인으로는 제주도지사, 의사, 식산은행 및 산업조합 간부 등이 참여하였고, 한국인으로는 도회의원, 판사, 변호사, 군수, 읍장, 면장, 도 경시와 순사, 의사 및 금융조합 등 각종 조합의 조합장과 상선, 면업, 주조, 운송 분야 등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39) 「제주불교협회」, 『동아일보』, 1924.11.30, 『불교』 제6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24.12, p.66.

40) 이경순, 「이회명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35집, 대각사상연구원,



불교협회는 설립 후 5개월여 만에 삼천여 명의 회원을 두게 되었고 동리별 대표 삼십여 명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협회 산하에 제주불교부인회, 제주불교소녀단 등의 신행 단체를 구성하였다. 시내에 제주불교포교당을 건축해내었고 각종 불교 행사의 거행을 주도하였다. 협회 주도의 석가탄신일 기념 설법과 강연이 새롭게 시행되었고, 성도일 설법회, 염불정진, 가사불사 등이 이루어졌고 신행단체가 함께 불교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제주불교협회는 제주 사회의 현안에도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제주도내 수해를 위로하는 추도회 및 해상 조난자 추모 수록재를 주관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제주불교가 처음으로 중앙에서의 불교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제주불교협회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1928년 제주불교협회 대표자들이 조선불교학인대회에 참여하였다.

제주불교협회에는 관음사 주지 안도월과 안봉려관, 오이화 등의 관음사 승려가 참여한 정도였다. 협회장 마에다 겐지(前田善次) 제주도사가 제주도를 떠나고 이회명도 제주도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제주불교협회는 급격히 부진해지는데 제주불교계가 구심점이 아니었던 활동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또한 제주불교협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1920년대까지 조선총독부의 사찰 설치 허가를 받은 제주도내 조선 사찰은 관음사 등 5개소에 불과했다. 1920년대에 총독부의 설치 허가를 받는 사찰은 백양사 말사 제주도포교소라는 점 등으로 제주불교 인물인 오이화 등이 활동하던 불탑사의 경우와 같이 관음사와 제주도 승려들이 관련된 사찰은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은 1920년대 중반까지도 일제가 제주불교 활동을 통제하고 있었던 까닭이었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기도 하다.

1920년대 제주불교협회의 활동이 제주불교 활성화에 힘을 보탬에

---

2021.

한금순의 앞의 책 참조.

도 불구하고 제주불교는 1930년대 초반에 15개 정도의 사찰이 활동하고 있는 정도였다.

## 2. 심전개발 운동 이후 제주불교의 변화

### 1) 불교 활동의 활성화

심전개발운동 시기 제주불교는 대규모 법회의 개설로 신앙 양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법화산림, 미타산림, 정토산림, 관음산림 등을 개설하여 대중을 상대로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대규모의 불사가 거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각종 법회의 개설은 근대시대 제주불교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전개발 운동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제주불교의 변화 중 가장 큰 질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제주불교에 전통 불교를 포교하겠다는 의도로 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법회를 개설하고 있다.

1936년 10월의 법화산림 대작불사를 대표적으로 살필 수 있다. 법화산림 대작불사는 제주도의 여러 본산의 말사 사찰인 대흥사 원당포교소, 백양사 원당포교소, 선암사 조천포교소, 법주사 포교소, 백양사 함덕포교소, 대흥사 고산포교소, 백양사 한림포교소 등 사찰을 순회하며 45일간(1936년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행되었다.

#### 제주도 법화산림 대작 불사

화엄사 재적 이성봉 사는 고 자기 모친 천도를 위하여 법화경 20여 부를 인출하여 제주 전도 각 대본산 중요포교소에다 배포하고 구 10월 1일 설교사 이성봉 최청산 김신산 이학암 제씨를 초대하여 각 소를 순회 설교하는 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제주 재래불교라는 것이 근본정신을 뒤로하고 민중에게 문복(問卜), 점술, 팔양경, 옥○경 등으로 중지를 삼아오던 패종 미신을 타파하고 근본정신을 주입하여 교단 체면 오손된 것을 부활키 위하여 각처 다수 신

도를 집회하고 좌기 제씨는 열렬한 대작불사를 의순 진행하였다고 한다.

대본산 대흥사 원당포교소

제1회

- 구 10월 1일 설교 문학연 사
- 10월 2일 설교 이성봉 사
- 10월 3일 설교 최청산 사
- 10월 4일 설교 문학연 사
- 10월 5일 설교 김신산 사
- 10월 6일 설교 최청산 사
- 10월 7일 설교 문학연 사 ... 중략 ...

제7회 ... 41)

법화산림의 목적은 제주불교가 불교의 근본정신에서 벗어나 복을 구하거나 점술 등<sup>42)</sup>의 미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화산림을 개설하여 전통불교의 근본정신을 민중에게 가르치겠다<sup>43)</sup>는 것이었다. 법화경을 각 본산의 포교소에 배포하고 설법하였다. 문학연, 이성봉, 최청산, 김신산, 이학암이 설교를 맡았다.

이 외에도 1936년 10월 범주사 제주 조천포교당의 법화산림,<sup>44)</sup> 1936년 11월 대흥사 제주성내포교소의 미타정토산림,<sup>45)</sup> 1937년 3월

41) 「제주도 법화산림 대작불사」, 『불교시보』 제20호, 불교시보사, 1937.3.1, p.8.

42) 인용문 안의 팔양경은 도교풍의 불교경전이고, 옥○경은 옥추경일 가능성이 있다. 옥추경은 무속신앙에서 읽는 경문이며 묘향산 보현사에서 독경하였다는 기록도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3) 제주불교는 미신적 경향에 쏠려 있다는 당대 비판이 있으며 그 이유는 제주도에 승려 교육기관이 없어 제대로 승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으로 제주도에 승가교육 기관 설립을 시행하였다는 연구가 있다.(한금실, 「이세진(1910~1949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연구」, 제주대학교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44) 「법맥 상속식」, 『불교시보』 제20호, 불교시보사, 1937.3.1, p.8.

45) 「대본산 대흥사 제주성내 포교소 미타산림 법회」, 『불교시보』 제20호, 불교

서귀포 백양사포교당의 법화산림,<sup>46)</sup> 1937년 12월 안덕면 산방사 정토산림,<sup>47)</sup> 1939년 2월 대홍사 제주성내포교당의 관음산림이 마련되었다.<sup>48)</sup> 서귀포 백양사포교당의 법화산림에는 매일 3, 4백 명의 신도가 일주일간 출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불교에 전통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대규모 산림이 여러 사찰에서 개설되는 것은 심전개발운동 시기에야 처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외에도 사찰별로 염불기도회,<sup>49)</sup> 백일기도,<sup>50)</sup> 관음기도<sup>51)</sup> 등과 성탄법회,<sup>52)</sup> 우란분법회,<sup>53)</sup> 등의 각종 법회가 마련되었고 예수제,<sup>54)</sup> 열반제<sup>55)</sup> 등의 재일도 거행되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양상으로 제주 불교의 활동이 근대 이래 가장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

시보사, 1937.3.1, p.8.

- 46) 「제주 서귀포 백양사포교당 법화산림 대성황」, 『불교시보』 제21호, 불교시보사, 1937.4.1, p.9.
- 47) 「산방사의 가사불사」, 『불교시보』 제31호, 불교시보사, 1938.2.1, p.12.
- 48) 「동교(同敎) 관음산림」, 『불교시보』 제47호, 불교시보사, 1939.6.1, p.16.
- 49) 「고내리교당의 염불기도회」, 『불교시보』 제25호, 불교시보사, 1937.8.1, p.15.
- 50) 「제주도 삼양리 백양사포교당의 백일 기도 회향」, 『불교시보』 제31호, 불교시보사, 1938.2.1, p.9.
- 51) 「대본산 선암사 제주포교소 관음기도」, 『불교시보』 제34호, 불교시보사, 1938.5.1, p.7.
- 52) 「대본산 백양사 제주도 서귀포포교당의 석존 강탄 기념식 거행」, 「대홍본산 제주교당 성탄 봉축」, 「제주도 성산포포교소의 성탄 봉축회」, 『불교시보』 제36호, 불교시보사, 1938.7.1, p.7.
- 53) 「제주 표선포교소의 백중절 기원제」, 『불교시보』 제39호, 불교시보사, 1938.10.1, p.15.
- 54) 「원당사의 예수제와 위령법요식 거행」, 『불교시보』 제41호, 불교시보사, 1938.12.1, p.12.
- 55) 「제주성내 대홍사포교당 열반절 기념」, 『불교시보』 제47호, 불교시보사, 1939.6.1, p.16.

<표 5> 심전개발운동 시기 제주불교 법회 활동

일시	법회 활동
1936년 10월	화엄사 제주포교당 법화산림 대작불사(45일간)
1936년 10월	법주사 제주 초천포교당 법화산림(7일간)
1936년 11월	대흥사 제주성내 포교소 미타 정토산림(7일간)
1937년 1월	선암사 제주포교소 관음기도(7일간)
1937년 1월	위봉사 고내리교당 염불기도회(7일간)
1937년 3월	서귀포 백양사포교당 법화산림(7일간)
1937년 12월	산방사 정토산림
1937년 12월	삼양리 백양사포교당 백일 기도
1938년 8월	표선포교소 백중절 기원제 (우란분법회)
1938년 7월	원당사 예수재 및 위령법요식
1939년 2월	제주성내 대흥사포교당 열반절
1939년 2월	제주성내 대흥사포교당 관음산림

출처: 『불교시보』

각종 법회는 불교를 포교하고 신앙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규모의 법회를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심전개발운동으로 대규모의 대중집회가 가능해지면서 만들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와 마찬가지로 제주불교에서도 심전개발운동을 불교 포교의 기회로 활용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법회가 많아지면서 대흥사의 문학연 포교사를 비롯하여 백양사의 이일선, 이학암, 이세진 포교사 등 육지부 포교사들이 제주도로 내려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34년까지 8명이던 포교사는 1935년에 13명에서 1938년에 25명으로 증가하였다.<sup>56)</sup>

56) 『제주도세요람』(제주도청, 1935년 발행 / 1939년 발행)을 통해 포교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세요람』을 통해서만 제주불교 현황만이 아니라 조선야소교장로회 현황도 파악 가능하다. 조선야소교장로회의 경우는 1934년 포교자 4명이 1938년에는 24명으로 증가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전국적인 종교 증가세와 같은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2) 사찰 설립 증가

심전개발운동 시기 제주불교는 사찰 설립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 파악된다. 총독부에 설립을 신고한 포교소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적인 종교계의 현황과 같은 흐름이기도 하다.

1936년 이후 사찰 설립이 증가하는 것은 심전개발운동으로 불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1936년 이후 1944년까지 제주도의 설립 신고 사찰은 31개소 정도가 증가한다. 이는 1935년까지 설립 신고한 조선 사찰이 15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 동안 오히려 두 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sup>57)</sup>

다음의 <표 6>은 심전개발운동 시기 제주불교에서 파악되는 건물의 건립, 불상의 구비 등 불교 활동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사찰 설립 증가에 따라 법당과 요사 및 객실을 건축하는 곳이 파악되고 봉불식, 탕화 조성, 가사불사 등의 불교 활동도 증가한다.

<표 6> 심전개발운동 시기 제주불교 활동 현황

일시	활동 내용		포교소 명칭
1937. 4	건물 구비	포교당 창설 및 봉안식	위봉사 성산포 포교당
1937. 5		포교당 신설 및 봉불식	표선리 포교당
1937. 5		법당 및 요사 신설	법주사 신호 포교소
1937. 9		법당, 객실, 요사 신설	백양사 북촌 포교소
1937. 11		포교소 마련	관음사 평대 포교소
1938. 5		법당 신축	화엄사 하도리 포교당
1938. 9		낙성 창립식	제주선원
1938. 7 1938. 10		법당, 요사 신설/봉불식	동김녕포교당

57) 한금순은 앞의 책에서 1945년의 제주도 사찰 개수를 82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도 활동하고 있던 사찰의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총독부에 설립 신고를 한 사찰만 제시하였다.

1939. 4		개원 및 봉불식	대홍사 용담리 해륜사
1939.9 이전		법당 신축	백양사 한림 포교소
1939.9 이전		낙성식	화엄사 하도리 포교당
1937. 7	불상 구비	봉불식	대홍사 고산리 포교당 월성사
1938. 2		봉불식	관음사 평대 포교소
1938. 4		봉불식	위봉사 성산포 포교당
1938. 8		지장탱 조성	백양사 고내봉 포교소 보광사
1938.10 이전		관음존상과 금종 봉안	기림사 하원리 포교당 원만암
1939. 2		봉불식	백양사 제주읍 포교당
1937. 12		가사	가사불사
1938. 3	불사	가사불사	백양사 서귀포 포교당
1939.4 이전	기타	수백 원 출자	백양사 토산 포교당

출처 : 『매일신보』, 『불교시보』, 『불교』 등

심전개발운동 이전과 이후를 통계자료를 통해 비교해보면 제주불교의 확산세가 확인된다.<sup>58)</sup> <표 7><sup>59)</sup>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58) 불교 외 제주도의 천주교와 기독교의 증가 현황에 대해서는 당시 제주도의 천주교 관련 이재수의 난과 관련한 연구와 연계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불교의 추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9) 1926년의 종교 현황의 출처는 『제주도지』1권(제주도, 1993)이다. 1930년~1936년의 포교상황은 『제주도세요람』(제주도청, 1937), 1938년말 포교상황은 『제주도세요람』(제주도청, 1939)이 출처이다.

<표 7 > 제주도 종교 현황(1926년, 1930년~1936년, 1938년)

연 도 별	불교			천주공교			조선야소교장로 회			제칠일안식일야 소재림회		
	포교 수	포교자 수	신도 수	포교 수	포교자 수	신도 수	포교 수	포교자 수	신도 수	포교 수	포교자 수	신도 수
1926	4	5	624	2	2	304	14	10	659	3	3	39
1930	8	2	4068	2	2	402	13	3	995	2	1	31
1931	9	3	4573	2	2	458	13	4	934	2	1	26
1932	13	8	5379	2	2	420	14	4	897	3	1	20
1933	14	9	5112	2	2	665	14	4	2700	3	1	110
1934	14	8	4166	3	6	743	16	4	1276	3	1	27
1935	15	13	5394	3	5	574	16	3	783	3	1	12
1936	25	13	5611	3	4	530	16	6	1150	3	1	55
1938	30	25	6458	3	4	453	21	24	1346	2	1	33

제주도에서 심전개발운동이 실시되는 1936년 바로 전해인 1935년과 실시 이후인 1938년을 비교해보면 불교사찰은 15개소가 30개소로 증가, 포교사는 13명에서 25명으로 증가, 신도수는 5,394명에서 6,458명으로 1,064명 20%정도 증가하였다.

### 3) 불교계 조직 구성

심전개발운동으로 나타난 제주불교의 변화 중 또 하나는 제주불교연맹의 결성이다. 심전개발운동은 불교계의 대규모 대중 집회를 가능하게 하였고, 불교계는 이를 활용하여 포교의 규모를 확장해 나갔을 뿐 아니라 각종 불교 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 특히 제주불교연맹의 결성은 바로 심전개발운동의 영향으로 조직된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제주불교



연맹은 제주도에는 본산이 없이 육지부의 각각의 본사의 말사로만 활동하고 있었던 한계에서 통합된 활동을 희망하였던 제주불교계의 결실이었다.<sup>60)</sup>

제주불교연맹은 심전개발운동으로 촉발된 불교 부흥의 흐름 속에 결성되었으며, 연맹 결성 후 심전개발운동을 앞장서 이끌기도 하였다. 제주불교연맹은 제주불교 승려들의 대표단체로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제주불교연맹은 1939년 4월 2일 제주성내 대흥사포교당에서 전제주도 불교연맹결성회로 결성되었다.<sup>61)</sup> 연맹의 강령은 ‘제주불교의 통제, 신앙 보국(報國)의 실천, 대중불교의 실현’이다. 제주불교의 통제라는 강령은 제주불교연맹이 제주도내 사찰들을 통합 대표하는 단체라는 연맹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앙을 통해 보국을 실천한다는 강령은 국제관념 정신을 양성한다는 심전개발운동의 원칙과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제주불교연맹도 심전개발운동이 포교를 위한 방편임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중불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불교연맹 집행위원장으로서는 관음사의 오이화가 선출되었고 백양사 포교사인 송재술과 이일선, 이세진, 화엄사 포교사인 이성봉 등이 각 부서의 역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불교연맹이 서로 다른 본사의 제주도 포교소와 포교사들의 공동 활동의 기구로 제주불교의 통합단체로 조직되었다는 점이 근대제주불교에서 맞이한 제주불교의 성과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개별 사찰에 불교옹호회, 부인회 등 신도회 조직도 활성화되었다. 위봉사 성산포교소 부인회(1937년), 선암사 조천포교소 지장계(1937년), 제주성내 대흥사포교당 관음회(1939년), 법주사 신희포교소

60) 제주불교연맹 관련 선행 연구로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한금순의 앞의 책. 한금순, 「이일선과 제주불교연맹」, 『정토학연구』 제9집, 한국정토학회, 2006.

61)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 제47호, 불교시보사, 1939.6.1, p.16.

불교옹호회(1938년), 위봉사 남원면 신흥리포교당 불교부인회(1942년) 등이 조직되어 불교 활동을 실시하였다.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은 1930년대 후반 제주불교 신앙 활동의 활성화 및 활동의 대형화 및 조직화를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계와 마찬가지로 제주불교에서도 심전개발운동이 포교에 도움이 되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은 한국불교의 심전개발운동과 맥을 같이하여 활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불교가 심전개발운동을 계기로 포교 기회를 확대하는 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제주불교 활동도 같은 양상으로 파악되었다. 한국불교가 심전개발운동으로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제주불교도 심전개발운동으로 인해 불교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제주도의 심전개발운동 강연회는 대흥사의 포교사나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생 승려의 지방 순회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도 심전개발 강연회가 대규모의 대중집회로 가능했고 이는 공공기관의 협력이 도움이 되었다. 심전개발 강연회로 신앙에 대한 강연 활동도 보장됨에 따라 포교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제주불교는 범화산림, 미타산림 등의 대규모 범회를 실시할 수 있었고 관음기도, 염불기도회, 우란분법회 등을 개설하여 전통불교를 교육하고 신앙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각종 범회는 수백 명이 참여하는 성황이 이어졌다.

심전개발운동의 결과 제주불교는 사찰 설립이 증가하였다. 1935년까지 15개소였던 사찰이 1935년 이후 31개소 설립 증가가 일어났다. 범

당, 요사, 객실 건축이 이어졌으며 봉불식, 탕화 조성, 가사불사 등의 활동도 증가되었다.

양적 확장에 이어 승려와 신도의 불교활동의 확장이라는 측면도 파악된다. 제주불교연맹이 결성되어 제주도내 승려의 통합 활동 기관으로서 제주불교를 주도하는 활동을 하였고, 신도들은 사찰별로 불교옹호회, 부인회 등 신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불교의 활성화는 심전개발운동으로 인한 포교 기회의 확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불교가 한국불교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심전개발운동으로 인해 부흥하는 모습은 총독부의 심전개발운동이 중앙집권적 행정 처리로 인한 공권력의 전국적 통제에 도움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불교계의 흐름이 지방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맞물려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중앙의 역사와 지방사가 상호 교차 확인이 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불교사, 『불교』 영인본, 민족사, 1996.  
불교시보사, 『불교시보』 영인본, 민족사, 1996.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1935.  
\_\_\_\_\_, 『제주도세요람』, 1939.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2002.

### 2. 저서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_\_\_\_\_,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경인문화사, 2014.  
송규진,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지수결 등,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3 : 1920.1930년대 ‘식민지적 근대’와 한국인의 대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 3. 논문

- 김순석, 「1930년대 전반기 재조선(在朝鮮) 일본 불교계의 동향 -『조선불교』지에 나타난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_\_\_\_\_,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의 ‘심전개발운동’ 전개와 조선 불교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류승주, 「일제의 불교정책과 친일불교의 양상」 『불교학보』 제4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  
오성숙, 「일본 불교와 내셔널리즘 -식민지 조선의 녹기연맹과 기관지 『녹기』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제37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9.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신계몽운동을 통한 식민통치 -1930년대 심전개발운동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제8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조성운, 『『불교시보』를 통해 본 심전개발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7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한금순, 「이일선과 제주불교연맹」 『정토학연구』 제9집, 한국정토학회, 2006.

한금실, 「이세진(1910~1949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한궁희, 「1935~37년 일제의 '심전개발'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6.

#### 4. 기타

고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Abstract

### Jeju Buddhism's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and Changes in Jeju Buddhism

Han, Geum-soon  
(Jeju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The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is a spiritual enlightenment movement initiated by Governor-General of Chosen in the mid-1930s. Governor-General of Chosen emphasized the virtues of 'Honor God and Venerate Ancestors' and expected that Korean Buddhism could experience a resurgence through this movement. The Buddhist community obtained opportunities for lectures related to the state of the country and spiritual cultivation, as well as for propagating Buddhism through this movement. As a result, Buddhist activities had been revitalized with establishment of new temple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elievers.

Jeju Buddhism was aligned with the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in Korean Buddhism. In the early stages, Lectures of the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in Jeju were organized by propagators from Daeheungsa Temple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student monks from the Central Buddhist College who toured across the regions. Public institutions encouraged the hosting of these lecture events. Since Jeju Buddhism benefited from the lecture activities increased by the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the Buddhist community in Jeju was able to establish their large-scale memorial services for Buddhist propagation, such as ceremonies at Beophwa prayer meeting and Mita prayer meeting. Furthermore, they had meditation and chanting sessions to learn the traditional Buddhist faith

like Gwaneum Prayer Meeting, Buddhist Chanting Prayer Meeting, and Uranbun memorial service. These Buddhist rituals were successful and attracted hundreds of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Jeju Buddhism saw an increase in the establishment of new temples. The number of Buddhist temples, which was 15 until 1935, increased significantly to 31 after 1935. Buildings in the temples such as dharma halls, hermitages, and guest rooms continued to expand. Buddhist activities like consecration of Buddha statues and the altar portraits of Buddha and ceremonies giving clerical robes to monks also increased. Following the quantitative expansion, the expansion of Buddhist activities of monks and believers is also recognized. In addition, the Jeju Buddhist Federation was organized and led unified activities within the Buddhist community in Jeju. Other Buddhist associations, such as Buddhist Advocacy Groups and Women's Associations, were also organized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has become a force to activate Jeju Buddhist activities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Korean religious world such as Korean Buddhism.

#### Key words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Spiritual enlightenment movement, Jeju Buddhism, Jeju Buddhist Federation, revitalization of Jeju Buddhism, lecture tour of the provinces, grand scale buddhist ceremony, orthodox buddhist ritual movement, Gwaneumsa, increase of temple establishment

논문투고일 : '23. 10. 11. 심사완료일 : '23. 11. 22. 게재확정일 : '23. 11. 22.